

화학산업 설비투자 명암 “갈린다”

산자부, 석유화학 설비투자 16% 감소에 정밀화학 11% 증가

2002년 화학산업 설비투자는 석유화학이 위축되는 반면, 정밀화학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가 2001년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 설비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석유화학 설비투자는 15.9% 감소하는 반면, 정밀화학 설비투자는 10.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대기업의 설비투자는 2001년 5.8%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0.1% 소폭 증가로 반전될 전망이다.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전통산업 부문의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반도체, 전자 부품의 투자 감소세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반도체 가격하락 등 IT 부문의 구조조정, 9.11 테러사태 등으로 내수 및 수출부진에 따라 2001년도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기침체로 신제품 생산이나 설비확장 투자는 감소했으나, 합리화·연구개발·정보화 투자는 증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설비투자실적 및 계획(목적별)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1/00	2002/01	비 중		
						2000	2001	2002
신 제품	26,096	26,527	26,547	1.7	0.1	0.110	0.119	0.119
설 비 확 장	132,694	106,071	104,285	-20.1	-1.7	0.559	0.474	0.466
자 동 화	8,604	11,620	10,266	35.1	-11.7	0.036	0.052	0.046
유 지 보 수	28,900	31,799	34,941	10.0	9.9	0.122	0.142	0.156
에 너 지 절 약	2,915	4,668	5,728	60.1	22.7	0.012	0.021	0.026
연구개발투자	12,907	15,727	17,311	21.8	10.1	0.054	0.070	0.077
정 보 화 투 자	4,464	6,050	6,392	35.5	5.7	0.019	0.027	0.029
기 타 투 자	20,842	20,749	18,412	-0.4	-11.3	0.088	0.093	0.082
합 계	237,422	223,571	223,784	-5.8	0.1	1.000	1.000	1.000

2002년 200대기업 설비투자는 0.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인하·재정확대, IT 부문 구조조정 진전, 국내경기 진작정책 등으로 2002년도 경기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기계를 비롯해 조선, 철강, 가전, 정밀화학, 시멘트, 유통 업종의 설비투자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석유화학은 2001년에는 투자가 증가했으나 2002년에는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투자는 2001년 19.3% 증가한 반면, 2002년에는 15.9% 감소할 전망이다.

2001년에는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와 석유화학제품 가격하락 등 전반적 여건 악화 속에서도 일부를 중심으로 신제품 생산과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호남석유화학은 MMA 플랜트 건설에 9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구조조정 및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BASF가 MDI 플랜트 건설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최대일 정도이다.

섬유는 2001년 11.6% 감소한데 이어 2002년에도 37.5% 감소할 전망이다.

2001년에는: 세계적인 섬유 공급과잉 및 경쟁심화, 의류 소비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일부기업의 파산·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됐다. 태광산업이 면방설비 보수에 310억원, 코오롱이 산업용 PET 증설에 245억원을 투입했다.

200대기업 설비투자계획

(단위: 억원, %)

업 종	2000	2001	2002	2001/00	2002/01	2002 (1-6)	2002 (7-12)
일반기계	2,609	3,299	3,849	26.5	16.7	1,744	2,105
항 공	6,175	4,148	2,172	△ 32.8	△ 34.6	1,148	1,244
자동차	23,994	23,898	28,347	△ 0.4	18.6	11,384	16,963
조 선	3,499	6,047	7,438	72.8	23.0	4,048	3,390
철 강	14,850	23,261	25,544	56.6	9.8	13,375	12,169
비철금속	2,163	2,382	2,469	10.1	3.7	1,565	904
석유화학	10,569	12,608	10,602	19.3	△ 15.9	4,771	5,831
반도체	62,737	50,777	46,057	△ 19.1	△ 9.3	30,072	15,985
전자부품	33,871	19,747	19,724	△ 41.6	△ 0.2	10,753	8,971
정보통신	5,491	4,668	3,606	△ 15.0	△ 22.8	2,466	1,140
가 전	2,569	2,742	3,094	6.7	12.8	1,574	1,520
중전기	1,189	1,865	1,402	56.8	△ 24.8	675	727
섬 유	3,909	3,640	2,259	△ 6.9	△ 37.9	1,081	1,118
신 발	115	121	172	21.5	72.5	98	75
정밀화학	1,865	2,160	2,390	15.8	10.7	1,483	1,447
타이어	3,682	3,077	2,871	△ 15.3	△ 6.7	1,398	1,473
제 지	1,387	1,190	1,261	△ 14.2	6.0	574	687
시멘트	1,199	1,245	1,596	3.8	28.2	1,052	544
제조업계	181,823	166,875	164,853	△ 8.2	△ 1.2	89,581	76,293
에너지	45,092	45,086	46,530	0.0	3.2	23,286	23,247
유 통	10,506	11,610	11,968	10.5	3.1	6,014	5,934
합 계	237,422	223,571	223,784	△ 5.8	0.1	118,831	105,494

2002년에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산업용 화학섬유 설비투자는 점차 증가하나, 의류용 설비투자는 섬유산업 경쟁력 약화로 수요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효성은 자동차에 43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는 2001년 설비투자가 정체(0.0%)였으나 2002년에는 3.2%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2001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로 전력(△1.0%), 가스(△17.7%) 분야의 설비투자는 감소했으나 정유업계의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확장(19.8%)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S-Oil의 분해·탈황설비 투자 3450억원이 최대 투자로 기록됐다.

2002년에는 전력 수요둔화 예상으로 전력산업은 설비투자가 3.5% 감소하겠으나, 가스산업(8.5%)의 배관투자 증가와 정유부문(56.1%)의 설비투자 지속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재원 조달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1/00	2002/01	비중		
						2000	2001	2002
직접금융	27,187	25,271	23,317	-7.0	-7.7	0.115	0.114	0.104
(주식)	(2,225)	(2,335)	(3,412)	(4.9)	(46.1)	(0.009)	(0.011)	(0.015)
(회사채)	(24,962)	(22,936)	(19,905)	(-8.1)	(-13.2)	(0.105)	(0.103)	(0.089)
간접금융	30,695	40,128	28,289	30.7	-29.5	0.129	0.181	0.126
(은행)	(25,135)	(37,763)	(26,833)	(50.2)	(-28.9)	(0.106)	(0.170)	(0.120)
(저금융/리스)	(5,560)	(2,398)	(1,430)	(-56.9)	(-40.4)	(0.023)	(0.011)	(0.006)
내부유보	155,106	141,018	152,922	-9.1	8.4	0.653	0.636	0.683
해외조달	6,749	6,892	3,900	2.1	-43.4	0.028	0.031	0.017
기 타	17,685	9,260	15,892	-47.6	71.6	0.074	0.042	0.071
합 계	237,422	223,571	223,784	-5.8	0.1	1.000	1.000	1.000

한편, 설비투자 목적별로는 설비확장형 투자가 2002년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2001년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에너지절약·정보화 투자 등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2001년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꾸준히 증가했고 2002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투자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제품생산 목적의 설비확장형 투자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0년 55.9%에서 2001년 47.4%, 2002년 46.6%로 하락했다.

반면, 유지보수투자, 에너지절약투자, 연구개발투자 및 정보화투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비는 내부유보에 의한 재원조달이 2002년 증가세로 전환되고, 2002년 주식시장이 개선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주식발행에 의한 조달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회사채 발행에 의한 조달은 2002년에도 계속 감소하고, 은행차입을 통한 조달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1/ 09 >